

제1010호 2025. 6. 13.

건설동향

BRIEF_{ing}

• 2024년 건설업 기업경영분석

- 건설업만 역성장... 2024년 주요 경영지표 전반적 악화
-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건설업 수익성과 안정성 동반 저하
- 건설업, 3년 연속 하락세... 회복은 2026년 이후 기대

• 2025년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

- 2025년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100명, 2023년 이후 2년간 ↑
- 2025년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자 수 55명, 전년 대비 1.4배 ↑
- 사고·질병 모두 증가세... 건설업 재해 예방 위한 구조적 개선 시급



2024년 건설업 기업경영분석

- 건설업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모든 지표 전년 대비 악화 -

이지혜(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2024년 건설업 성장성지표 전년 대비 악화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4년 건설업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이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함(〈표 1〉 참조).
 - 2023년 7.99%였던 건설업 총자산증가율은 2024년 3.00%로 전년 대비 4.99%p 하락함.
 -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은 2023년 4.76%에서 2024년 -3.22%로 7.98%p 하락하여 역성장함.
 - 건설업 총자산증가율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매출액증가율은 2022년부터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성장성이 악화가 지속됨.
- 건설업과 달리 2024년은 전(全)산업 및 제조업 성장성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됨.
 - 2024년 전(全)산업 총자산증가율은 6.46%로 전년(5.40%) 대비 1.06%p 증가하였고, 매출액증가율 역시 4.16%로 전년(-2.03%) 대비 6.19%p 상승하며 플러스(+) 수치로 전환됨.
 - 제조업은 2024년 총자산증가율이 7.31%, 매출액증가율이 5.16%로 전년 대비 각각 0.53%p, 7.88%p 상승함. 전산업 및 제조업의 성장성 개선과 달리, 건설업의 성장성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함.

2024년 건설업 수익성지표 모두 전년 대비 하락

- 2024년 건설업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 모두 2023년 대비 다소 하락함.
 - 2024년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06%로 2023년 3.25%보다 0.19%p 하락함.
 - 2024년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02%로 2023년 3.03%보다 0.01%p 낮음.
 - 2024년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전년 대비 하락 폭은 적어졌으나, 2021년부

터 2024년까지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이가 이어짐.

- 반면, 전산업과 제조업의 수익성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는데, 2024년 전산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 5.18%과 매출액영업이익률 5.36%는 전년 대비 각각 0.69%p, 1.55%p 상승했으며, 제조업 역시 매출액세전순이익률(6.32%)과 매출액영업이익률(5.56%)이 전년 대비 각각 1.08%p, 2.27%p 상승함.

● 2024년까지 지속된 고금리로 인해 건설업 수익성지표 중 이자보상비율도 하락함.

- 2023년 1월부터 3.50%를 유지하던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 3.50%에서 3.25%로, 그리고 11월 3.25%에서 3.00%로 총 두 차례 인하됨. 하지만 2024년 건설업 차입금평균이자율은 5.07%로 전년 (4.79%) 대비 0.28%p 높아 고금리 상황이 심화됨.
-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해 2024년 건설업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100]은 183.08%로 2023년 216.76%보다 33.68%p 하락함. 건설업 이자보상비율 역시 다른 수익성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2021년(519.72%)부터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임.
- 고금리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전산업과 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21.05%에서 2024년 298.95%로, 제조업은 2023년 289.75%에서 2024년 468.57%로 각각 77.90%p, 178.82%p 상승함.

2024년 건설업 안정성지표 또한 전년 대비 악화

● 2024년 건설업 유동비율은 2023년보다 다소 하락함.

- 2024년 건설업 유동비율은 151.38%로 2023년 152.85%에서 1.47%p 하락함.
- 2024년 유동비율은 제조업을 비롯한 전산업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제조업 유동비율은 2023년 131.01%에서 2024년 122.63%로 8.38%p 하락하고, 전산업 유동비율은 2023년 120.00%에서 2024년 116.04%로 3.96%p 하락함.

● 건설업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전년 대비 상승함.

- 건설업 부채비율은 2023년 115.80%에서 2024년 117.95%로 2.15%p 상승함. 건설업 부채비율의 상승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짐.
- 건설업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24.45%에서 2024년 25.78%로 1.33%p 상승함.
- 한편, 전산업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2024년에 개선된 모습을 보임. 전산업 부채비율은 2023년 102.03%에서 2024년 101.85%로, 전산업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28.27%에서 2024년 28.26%로 각각 0.18%p, 0.46%p 감소함.

- 최근 몇 년간 건설업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유동비율과 차입금의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차입금의존도의 상승은 차입금평균이자율의 상승과 맞물려 기업의 금융비용 증가로 나타남.
 - 2024년 건설업 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율(금융비용/매출액)은 2023년 1.40%에서 2024년 1.65%로 0.25%p 상승함.
-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함.
 - 2024년 건설업 총자산회전율은 0.77회로 2023년 0.81회보다 0.04회 하락함.
-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인해 건설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가 최근 3~4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은 건설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저하했으며, 건설사들의 수익성 높은 사업에 대한 선별적 수주 전략은 건설업 매출 감소와 함께 성장성도 둔화시킴.
 - 다만, 공사비 급등 이전에 수주한 저수익 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이므로, 향후 건설공사비의 현실화, 금리 인하, 재건축 활성화 등 건설 경기 회복 여건이 갖춰질 경우, 2026년부터는 건설업 경영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1〉 2024년 주요 경영지표

구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회)
		총자산 증가율 ¹⁾	매출액 증가율 ²⁾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총자산 회전율
건설업	2023	7.99	4.76	3.25	3.03	216.76	152.85	115.80	24.45	0.81
	2024	3.00	-3.22	3.06	3.02	183.08	151.38	117.95	25.78	0.77
제조업	2023	6.78	-2.72	5.24	3.29	289.75	131.01	68.21	20.50	0.82
	2024	7.31	5.16	6.32	5.56	468.57	122.63	70.07	20.69	0.80
전산업	2023	5.40	-2.03	4.49	3.81	221.05	120.00	102.03	28.72	0.78
	2024	6.46	4.16	5.18	5.36	298.95	116.04	101.85	28.26	0.76

주 : 1) 전년말대비

2)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2025.06.11), 2024년 기업경영분석(속보).

2025년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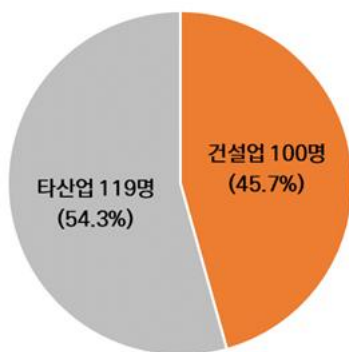
-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0.43‰, 산업평균(0.10‰)보다 4.4배 높아...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등 영향 -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reik.re.kr)

2025년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100명¹⁾, 2023년 이후 2년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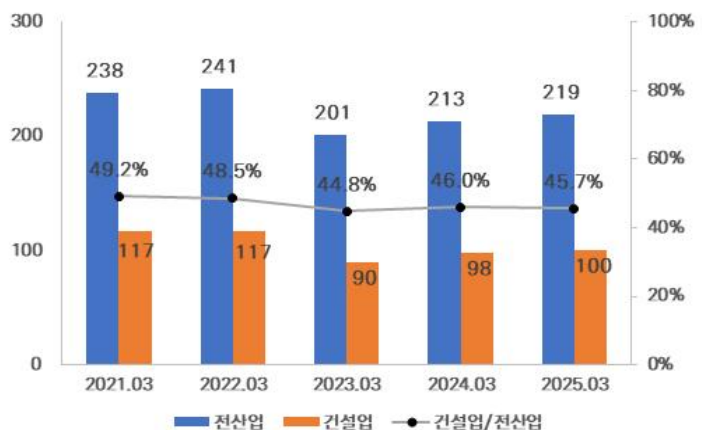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의 2025년 1분기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건설산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사고사망자)는 100명으로, 전체(219명)의 45.7%를 차지하였음.
-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3년 90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최근 2년간 '24년 98명, '25년 10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산업 사고사망자 수도 마찬가지로 '23년(201명) 이후 늘어나는 추세임.
- '25년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증가는 지난 2월에 발생한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사망 4명) 등 대형사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24년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98명)는 '23년 동기(90명) 대비 8명 많았으나, 4분기 최종 사고사망자 수는 328명으로 '23년 356명 대비 28명 감소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음.

〈그림 1〉 '25년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자료 : '25년 1분기 산업재해현황

〈그림 2〉 최근 5년 전체 및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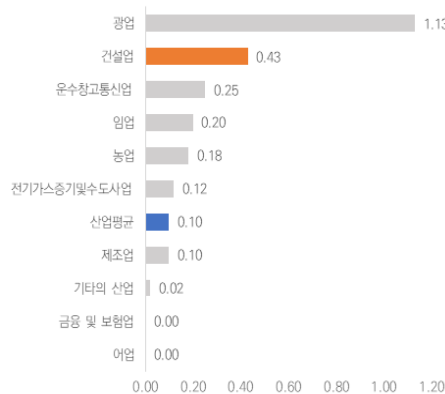


자료 : 연도별 1분기 산업재해현황

1) 지난 6월 9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5년 1분기 산업재해현황 주요 내용을 요약함. 해당 통계는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승인통계)로, 실제 재해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조사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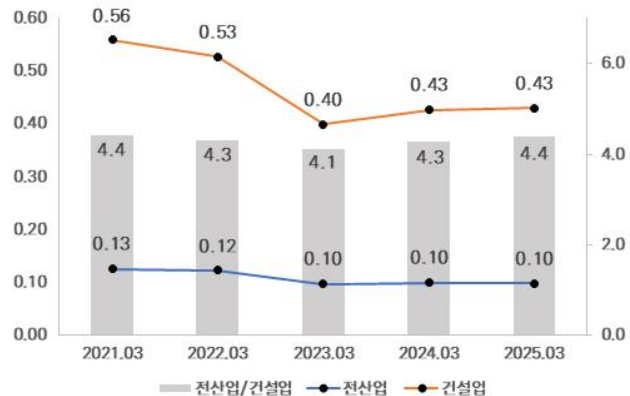
- '25년 1분기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건설업은 0.43‰(퍼밀리아드)로 광업(1.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산업 평균이 0.10‰보다는 약 4.4배 높았음.
- 최근 5년간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21년 0.56‰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3년 0.40‰로 저점을 기록한 후 '24년 다시 0.43‰로 소폭 증가하였음. 전산업의 경우 '21년 0.13‰에서 '25년 0.10‰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임.
- 건설업과 전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 격차는 최근 5년간 건설업이 평균 4.3배 정도 높았음.

〈그림 3〉 '25년 1분기 산업별 사고사망만인율



자료 : '25년 1분기 산업재해현황

〈그림 4〉 최근 5년 전체 및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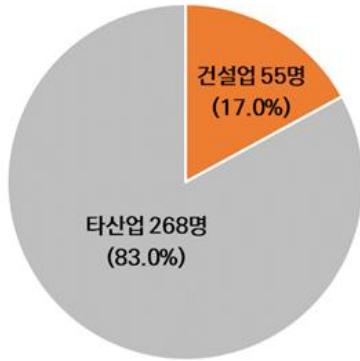
자료 : 연도별 1분기 산업재해현황

2025년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자 수 55명, 전년 대비 1.4배 증가

-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고사망자가 많고²⁾,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이하 질병사망자)는 적은 산업임. 하지만, '25년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자는 55명으로 전체(323명)의 17.0%로 분석됨.
-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자 수는 '22년 33명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산업의 경우도 '23년 295명까지 감소하다가 그 후 2년간 증가하였음.
- 전체산업의 질병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0%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비중(45.7%)에 비해 작아 보이긴 하나, 17%는 역대 최고치(질병사망자 55명 또한 역대 최대치에 해당)에 해당함.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정 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따라서 질병사망자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나, 전산업 대비 건설업 질병사망자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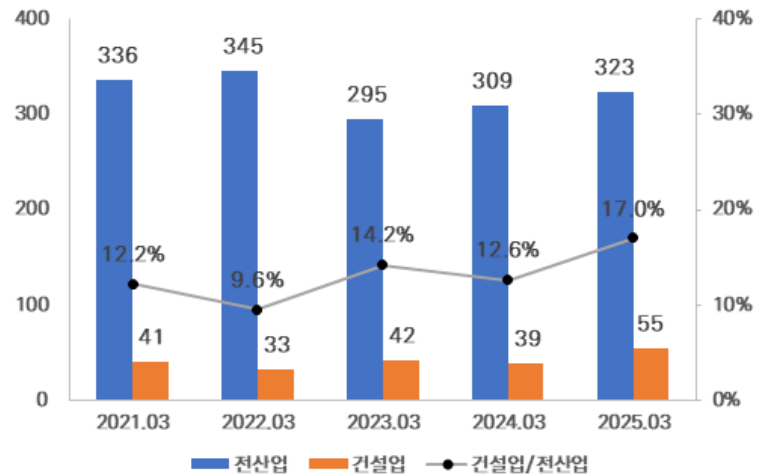
2) 건설업은 사망자(사고사망자 + 질병사망자) 중 질병사망자 비중이 35.5%로 사고사망자가 더 많은 산업임. 하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질병사망자(59.6%)가 더 많으며, 제조업은 65.3%, 그리고 광업에서는 사망자 중 무려 99.0%가 질병사망자에 해당함.

〈그림 5〉 '25년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자 수



자료 : '25년 1분기 산업재해현황

〈그림 6〉 최근 5년 전체 및 건설산업 질병사망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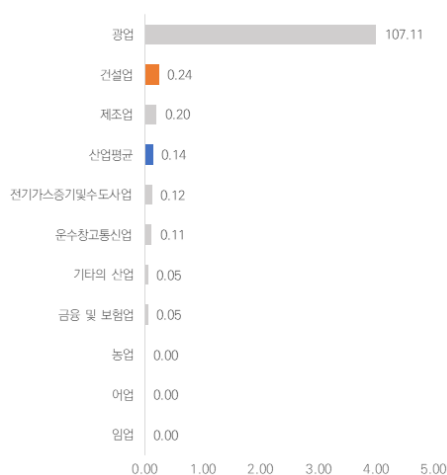


자료 : 연도별 1분기 산업재해현황

● '25년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만인율은 0.24‰로 광업(107.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산업 평균(0.14‰)보다 약 1.6배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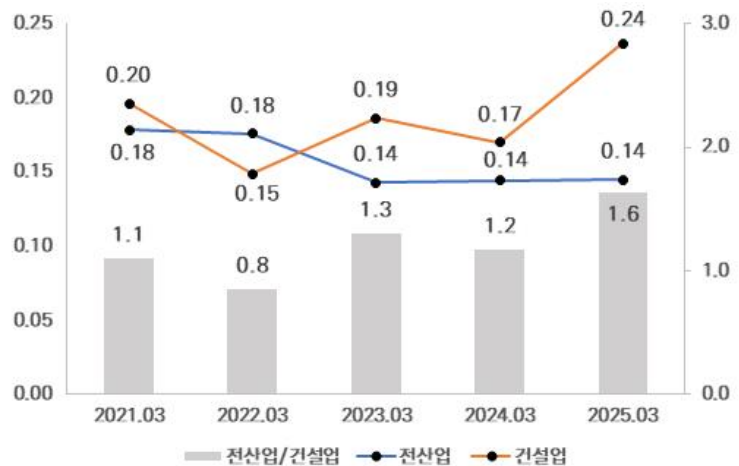
-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만인율은 '22년 0.15‰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5년 0.24‰로 증가세에 있음. 전체산업으로 보면 '22년 0.18‰에서 '25년 0.14‰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임.
- 건설업과 전산업의 질병사망만인율 격차는 최근 5년간 건설업이 평균 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사망만인율 격차(평균 4.3배)보다는 적었음.

〈그림 3〉 '25년 1분기 산업별 질병사망만인율



자료 : '25년 1분기 산업재해현황

〈그림 4〉 최근 5년 전체 및 건설산업 질병사망만인율 변화



자료 : 연도별 1분기 산업재해현황